

한국 한의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비훈(鼻熏)요법’의 활용에 대한 연구

¹김동율, ²이지영

¹경희울한의원, ²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

A Study on the Use of Bihoon (鼻熏) Therapy, which focuses o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¹KIM Dong-ryul, ²Lee Jee Young

¹Kyunghee Yul Korean Medicine Clinic, ²Integrative Cancer Center, Cha Ilsan Medical Center

This paper is a study to find the philological basis of Bihoon (鼻熏) therapy. There is no separate philological study of Bihoon therapy to date, and for this reason,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r specific treatment manual. In this study, a related database was created and analyzed by examining literature data related to Bihoon therapy, focusing o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There were about 1,000 data points related to Bihoon therapy in 45 kinds of medical books. They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1. Acute diseases such as insensitivity, 2. Diseases that occur in the upper human body such as nose, head, eyes, and throat, 3. Women's diseases related to childbirth, 4. Treatment of skin diseases and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case of insensitivity treatment, the focus was on awakening the patient's mind, and the treatment of diseases such as the nose, head, eyes, etc. was focused on resolving each symptom. Symptoms related to childbirth were mainly treated for uterine escapism or fainting after childbirth, while skin diseases were mainly treated for diseases that did not heal well, such as amniotic fluid. If a multifaceted approach to non-discipline therapy is add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clinical utilization will also be increased.

Key words : Korean medicine, Korean medical history, Bihoon (鼻熏) Therapy, Steam Inhalation, Steam Therapy

I. 서론

본 연구는 국내 한의 임상, 특히 암치료와 관련해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문헌적 연구가 미비한 ‘비훈요법’에 대해 문헌적으로 접근해 본 연구이다. 어떤 한의학 치료와 관련된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치료기술DB를 구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일 것이다¹⁾. 본고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으로 아직까지 문헌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비훈요법’과 관련된 다양한 고문헌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한의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훈요법’의 개념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비훈요법은 아직 명시된 정의는 없으나 활용되는 양태를 기준으로 ‘기화된 물질을 비강을 통해 흡수해 의약학적 효과를 도모하는 치료법’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치료법들이 외국에도 존재하는데 중국의 熏鼻法, 증동 및 아우르베다 문화권에서 일컫는 Steam Inhalation, Steam Therapy 등이 그러한 예이다. 비훈요법, 혹은 그와 유사한 치료법에 대한 선행 연구 중 문헌학적 접근을 하였던 주제로는 향기요법이 있다. 실제로 비훈요법은 기화된 상태의 물질을 치료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향기요법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향기요법이 흡입, 마사지, 도포 등 다양한 방법을 포괄하기 때문에²⁾ 비훈요법은 좌훈, 약욕 등과 같이 향기요법의 갈래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접수 ▶ 2023년 11월 21일 수정 ▶ 2023년 11월 30일 채택 ▶ 2023년 11월 29일
교신저자 ▶ 이지영, 경기도 고양시 중앙로 1205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
Tel : 082-31-782-3113 E-mail : happiade@chamc.co.kr

- 1) 차웅석, 장영재, 나지원, 안상우. 『의방유취』를 이용한 한의학 치료기술 개발의 가능성에 대한 모델링 연구. 한국역사학회지. 2023;36(1):143-154.
- 2) 정현정. 「향기요법의 암 환자 불면에 대한 효과에 관한 예비임상연구」. 대한암한의학회지. 2022;27(1):37-48.

오현주 등의 연구에서는 향이 인체에 전달되는 개괄적인 설명을 주로 하여 향기요법의 질병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자 하였고³⁾, 김승모 등은 암환자에게 향기 요법을 사용한 논문들을 종합하고 비교 분석하여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을 타진하였다⁴⁾. 이상의 연구는 문헌적 접근이라는 연구방식에서는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한의서를 중심으로 기존에 쓰였던 향기요법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지는 않아 문헌 기반을 갖추기 위한 연구로 보기는 어려웠다.

본고에서는 비훈요법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에 기반하여 다양한 국내 의학문헌들에서 비훈요법과 관련성이 높은 기록들을 선별 및 정리하였다. 국내 문헌의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인 『의방유취』와 국내 한의학에 가장 큰영향력을 끼친 의서인 『동의보감』을 비롯하여 국내의 다양한 의학적 정보가 담겨져 있는 의서인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의문보감』 및 여러 경험방서들을 참고하였다. 대다수의 의서들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제작한 ‘한의학고전DB’에 실려 있었기에 자료의 수집은 주로 ‘한의학고전DB’에서 진행되었다.⁵⁾

자료를 수집하면서 한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훈요법이 기화된 물질의 비강흡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코를 통한 약재의 흡수’라는 개념으로 이를 확장하여 자료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현재와 달리 과거에는 물질을 기화시키는 방법적 측면에서도 기술적 한계가 있었으며, 찾아본 의서 내용 중에는 꼭 기화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비강 흡입되어 의약학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치료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방향성 약재를 코에 넣는다던가 약재 가루를 콧속으로 넣는 등의 방식들인데, 이러한 방식들은 오늘날의 기술력을 이용한다면 기화작용을 거쳐 더욱 쉽게 비강을 통해 흡수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단 자료의 폭을 광범위하게 넓혀 ‘코를 통해 물질을 흡수하여 의약학적 효과를 도모하는 방법’을 최대한 수집 및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다량의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검색어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료들을 수집하였는데, ‘鼻熏’, ‘熏鼻’와 같은 한자 검색어부터 ‘코에’, ‘콧속에’와 같은 한글

검색어까지 활용하여 자료를 모으고, 그 중에서 주제와 적합하지 않은 자료들을 일일이 배제하였다. 연구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 ‘한의학고전DB’에 특정 검색어를 선정, 이를 통해 검색해 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1차 검색어는 ‘鼻熏’, ‘鼻燻’, ‘鼻熏’, ‘熏鼻’, ‘燻鼻’, ‘熏鼻’, ‘코에’, ‘콧속에’였으며, 해당 검색어에 나온 자료들을 일일이 읽어보면서 주제와 관련 자료들을 추출하고, 거기서 발견된 검색어들, 예를 들어 ‘吸鼻’, ‘入於鼻’, ‘鼻吸’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색을 수행하였다. 검색 결과 45권의 의서에서 약 1천여 건의 자료를 모을 수 있었다. 이 중에는 중복된 자료도 있었는데, 의서가 쓰이는 방식이 이전 의서의 내용을 차용하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동의보감』에 나오는 기록이 『의문보감』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번 연구는 비훈요법에 대한 국내 한의학 문헌정보 수집 및 정리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문헌에 담긴 비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리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모든 문헌들이 전산화되어 검색이 용이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며, 모든 의서에서 동일한 키워드로 비훈요법을 설명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해 키워드 검색 외에도 몇몇 의서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면서 비훈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나, 그래도 모든 내용을 정리하지는 못했음을 밝힌다. 다만 이상의 과정만으로도 수집한 자료의 양이 1천여 건에 다다를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충분히 의의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본고를 집필하였다. 이상의 아쉬움들은 추후 한의 문헌학 연구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II. 본론

한국 한의서에 기록된 ‘코를 통해 물질을 흡수하여 의약학적 효과를 도모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알게 된 가장 큰 특징은 이상의 방법이 활용된 질환들이 몇 가지 특정

3) 오현주, 이철완. 「향기요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996;6(1):427-430.

4) 김승모, 박성훈, 서정철, 이건호, 김경순. 「암 환자에서 향기 흡입요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동서의학. 2013;38(3):57-62.

5) 의서의 경우 대부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한의학고전DB(medicclassics.kr)를 활용하였다. 각 의서가 동일한 DB에서 나왔으며, 이들에 대해 개별 링크를 다는 것이 원고를 살피기에 더욱 번거로워질 것으로 판단하여 본문 각주에는 링크에 대한 기록 없이 의서 내용만을 기재하고, 의서에 대한 주요 링크를 참고문헌목록에 기재하였다.

질환군으로 분류된다는 점이었다.

사실 특정 질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는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인사불성으로 입을 열지 못하는 경우에는 코로 약재를 흡입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흡수하는 약재의 특성이나 세부적 상황, 약물을 복용시키는 목적 등에 따라 약재를 투입시키는 방법에는 약간씩 차이가 나나 코를 통해 무언가를 주입한다는 방식은 동일하며, 이는 입을 대신할 투입구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상황적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또 코의 질환이 있을 때 코에 약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코피가 계속 나가거나 코에 굳은살이 생겨서 코에 직접적으로 약재를 넣는 경우이다. 이 역시 코라는 목적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다른 자료들을 기준으로 코로 약용 물질을 흡입하는 질병군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1. 인사불성을 비롯하여 입을 열 수 없는 급성 질환
2. 코를 비롯하여 머리, 눈, 인후 등 흉부 이상의 인체 상부 질환
3. 출산과 관련된 여성 질환
4. 기타 몇몇 피부 질환과 전염병 예방 등

1. 인사불성을 비롯하여 입을 열 수 없는 급성 질환

이 경우는 대부분 정신을 잃어서 입을 열지 못하거나 무언가를 삼키지 못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中惡이나 客忤처럼 넘어져 사지가 싸늘해지고 입과 코에서 피가 나오는 상황, 주먹도 불끈 쥐고 입도 꼭 다물어버린 상태가 있다. 『의종손익』에서는 이때 환자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숯불에 식초를 부어 식초 냄새를 환자의 코에 쏘이면 환자가 깨어난다고 하였다.⁶⁾

아이를 출산한 뒤 실신하는 血暈에도 식초를 사용한다. 다만 이 경우 식초만 훈증하는 경우⁷⁾ 외에도 식초에 부추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병에 부추를 담고 여기에 뜨거운 식초를 부어 약간 시간을 둔 뒤 환자의 코에 쏘이게 하고 있다.⁸⁾⁹⁾ 그 외에도 건칠이나 오래된 칠기 태운 연기를 코에 쏘이는 방법도 기록에 남아있다.¹⁰⁾¹¹⁾ 혈훈에 반하나 조각가루를 사용하는 예시도 있는데, 이때는 가루를 코에 그대로 불어 넣는 방법을 통해 환자가 깨어나도록 유도했다.¹²⁾¹³⁾ 혼절했을 때 반하가루를 냉수로 반죽해서 대두 크기로 만든 다음 코로 넣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다.¹⁴⁾

인후가 부어오르면서 2-3일내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纏喉風에도 코로 약재를 흡입시키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전후풍은 연하곤란이 동반되는 질환이기 때문인데,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소양인의 전후풍에 수은훈비방을 사용하라고 하였으며¹⁵⁾, 그 구체적인 방법은 『동의사상신편』에 나와있다. 수은훈비방에는 흑연, 수은, 주사, 유황, 몰약, 혈갈, 석웅황, 유황의 총 7가지 약재가 사용되며, 이 약재들을 가루 내고 잘 섞어 종이 심지에 말아 놓은 다음 입에 냉수를 머금은 상태에서 심지 태운 연기를 코에 쏘인다.¹⁶⁾ 이때 입에 냉수를 머금은 것은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 화상에 대한 염려는 비훈요법과 유사한 치료법인 ‘Steam Inhalation’에서도 나타날만큼 현대까지도 중요시 되는 영역이다.¹⁷⁾

전후풍 치료에는 파두를 사용하는 방법도 남아있다. 파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는데, 그 중 하나는 파두 기름을 묻힌 종이를 심지로 사용해서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¹⁸⁾ 『의방합부』에는 아예 파두를 종이로

6) 『醫宗損益』「酉集·救急·中惡」“中惡·客忤，凡人暮夜，登廁，或出郊，或遊空冷室，忽見鬼物，口鼻吸著，驚然倒地，厥冷握拳，口鼻出血…中惡，宜燒炭火一杓，以醋沃之，令患人鼻熏醋氣。”

7) 『醫宗損益』「戌集·婦人·血暈」“有二…甚則口噤，氣冷不省，獨蓼湯。身熱氣急，加童便一盞。身寒，加附子。以醋噴面，醋沃炭火，熏鼻。”

8) 『四醫經驗方』「妊娠雜病·產後諸症」“血暈，韭菜細切，盛於有口瓶中，以熱醋沃之，急封瓶口。熏鼻中，即省。”

9) 『宜棠續編』「癩疹俗名小疫·鄉藥單方治驗四十九種·韭菜治驗」“產後血暈，韭菜切安瓶中，沃以熱醋令氣，入於鼻中，即省。”

10) 『東醫寶鑑』「雜病篇·婦人·產後諸證·血暈」“一方又乾漆，或舊漆器，燒烟熏鼻，即醒。”

11) 『診解胎產集要』「產後諸證·血暈·熏法」“乾漆燒烟熏鼻即醒。又炭火沃醋，當面熏之亦醒。”

12) 『依源學綱』「產後三十四·血暈·醋墨法」“…又半夏 皂角 末吹鼻。”

13) 『兩無神編』「女科·產後門」“產後運絕，半夏末，冷水和丸大豆大，納鼻中，即愈。”

14) 『壽世祕訣』「婦人門·產後諸病」“運絕，半夏末，冷水和丸大豆許，納鼻中即醒。”

15) 『東醫壽世保元』「少陽人·泛論」“少陽人，內發咽喉，外腫項頰者，謂之纏喉風，二三日內，殺人最急…重者，當用水銀熏鼻方，一炷熏鼻，而項頰，汗出，則愈。”

16) 『東醫四象新編』「外篇·劑方·少陽人·水銀熏鼻方」“黑鉛 水銀 各一錢，朱砂 乳香 沒藥 各五分，血蝎 石雄黃 硫黃 各三分。爲末，和均，捲作紙炷七條…蓋之噴冷水頻換，則不損口…纏喉風，則以汗出頂頰，爲度”

17) Sarah Al Himdani, Muhammad Umair Javed, Juliana Hughes, Olivia Falconer, Christopher Bidder, Sarah Hemington-Gorse, et al. ‘Home remedy or hazard? management and costs of paediatric steam inhalation therapy burn injuries’.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2016;66(644):e193-e199.

누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종이에 과두 기름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기 때문에 바로 심지로 활용할 수 있다.¹⁹⁾ 『의본』에서는 꼭 전후풍이 아니더라도 목구멍이 막혀 위급한 상태가 된다면 과두 기름 종이를 태워 연기를 쐬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²⁰⁾ 과두를 이용하는 다른 방법은 과두를 숨에 싸서 콧속에 그대로 넣는 방식으로,²¹⁾ 『의방합부』에 두 가지 기록이 다 있는 것으로 보아, 두 방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쓸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과두 기름을 묻혀서 그 종이를 태우지 않고 그대로 콧속에 넣는 방법도 졸중풍의 치료에 사용되었다.²²⁾

인사불성의 증상에 가장 많이 보인 약재로는 조각과 반하가 있다. 이 두 가지 약재는 주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코에 붙여 넣었다. 조각가루를 콧속에 넣는 경우²³⁾, 반하가루를 넣는 경우는²⁴⁾, 반하와 조각을 섞어서 붙여 넣는 경우²⁵⁾²⁶⁾²⁷⁾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이들 두 가지 약재와 옹황을 섞어 붙여 넣는 경우²⁸⁾, 이 둘에 세신만 섞어 붙여 넣는 경우²⁹⁾, 이 둘에 세신과 남성을 섞고 가루내어 콧속에 넣는 경우도 있었다.³⁰⁾

조각이나 반하가 사용되는 병증도 다양한데, 먼저 조각의

경우 중풍으로 인사불성이 된 경우에 조각가루를 코에 붙여 넣는 방법³¹⁾을 활용하며, 이는 중악이나 목매달아 죽으려고 시도하다가 인사불성이 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³²⁾³³⁾³⁴⁾ 가위에 눌렸을 때에도 조각가루를 사용하는데, 이때는 조각가루를 코에 붙여 넣은 다음 양쪽 귀에 대나무 관을 이용해 호흡을 붙여 넣으라고 하였다.³⁵⁾ 기궤이나 혈궤에도 조각가루를 코에 넣어주는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으며,³⁶⁾³⁷⁾ 갑자기 병이 들어 머리가 아플 때도, 객란으로 전근이 일어날 때 조각가루를 코에 넣어 채채기를 유도하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⁸⁾³⁹⁾.

반하 역시 중악에 사용되며⁴⁰⁾, 五絶急病⁴¹⁾에는 반하가루로 환을 빚어 이를 코에 넣어주는 방식으로도 활용되었다.⁴²⁾⁴³⁾ 타락상으로 인해 기절한 경우에도 조각가루나 반하가루를 사용할 수 있으며,⁴⁴⁾ 이는 중풍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⁴⁵⁾⁴⁶⁾ 어린아이의 경풍에는 반하와 조각가루를 함께 콧속에 넣어주라고도 하였다.⁴⁷⁾

조각가루를 활용하여 인사불성을 치료한 치험례가 문헌에 남아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40세 정도 된 남성이 괴질이 발생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약과 음식을 전혀 입에 넣어

- 18) 『醫宗損益』「卯集·咽喉·急喉痺, 纏喉風」“喉閉危急, 以紙染巴豆油作撚子, 點燈吹滅, 以烟熏鼻, 流涎自開.”
- 19) 『意方合部』「咽喉部·救急方·咽喉纏喉風喉腫付·急喉閉口噤垂死」“巴豆肉, 以紙壓出油, 作撚子點火吹滅, 以煙熏入鼻中, 即時口鼻流涎, 牙關自開.”
- 20) 『醫本』「咽喉·吹喉散」“喉閉危急, 以香染巴豆油, 作撚子點火吹滅, 以烟熏鼻流涎自開.”
- 21) 『意方合部』「咽喉部·救急方·咽喉纏喉風喉腫付·急喉閉口噤垂死」“巴豆肉, 綿裹塞鼻中, 立通.”
- 22) 『東醫寶鑑』「雜病篇卷之二·風·開噤法·巴豆熏法」“治卒中風, 口噤不省. 巴豆(去殼), 紙包槌油去豆, 以紙作撚條, 送入鼻內. 或加皂角末尤良.”
- 23) 『意方合部』「厥逆部·村救·卒死與尸厥同·孫真人, 治猝死」“以皂角末, 咋入鼻中.”
- 24) 『意方合部』「厥逆部·村救·卒死與尸厥同·轉筋入腹, 痛欲死」“半夏湯泡七次後, 爲末, 吹鼻中.”
- 25) 『醫門寶鑑』「諸驚」“治驚風, 昏迷不省. 半夏(生)一錢, 皂角五分. 爲末, 少許, 吹入鼻中.”
- 26) 『診解救急方』「墮壓傷」“凡墮壓死者, 頭心溫者, 皆可救...又半夏末 皂角末, 吹鼻得嚏, 亦甦.”
- 27) 『東醫寶鑑』「雜病篇·小兒·急驚風·噤驚散」“治急驚慢驚, 昏迷不省. 半夏(生)一錢, 皂角半錢. 右爲末, 取豆許, 吹入鼻中, 即醒.”
- 28) 『意方合部』「厥逆部·三意·中惡·暗處死者」“雄黃 半夏 皂夾, 等末吹鼻.”
- 29) 『單方秘要』「經驗新編·風門·中風」“皂角·細辛·半夏, 作末, 鼻中吹入.”
- 30) 『增補醫門寶鑑』「中風」“治卒中不省, 口噤氣塞. 皂角·細辛·半夏·南星 各等分. 爲末, 每少許, 吹入鼻中. 有嚏可治, 無嚏不可治.”
- 31) 『壽世秘訣』「諸風」“中風不省, 燈心草一兩燒灰, 和白礬一兩 百草霜五分, 竝爲末, 每五分薑湯下. 又皂角末, 吹入鼻中.”
- 32) 『宜巢續編』「小兒門·中惡」“中惡, 桃蠱作末 安息香燒末 東壁土, 漿水和服. 又葱白, 納肛門及鼻孔中, 即效. 又蘇合元末服之, 皂角末吹入鼻中.”
- 33) 『李石澗經驗方』「中惡卒死」“卒死, 以皂角末吹鼻中.”
- 34) 『宜巢續編』「癩疹俗名小疫·鄉藥單方治驗四十九種·皂角治驗」“自縊將死, 皂角末, 吹入鼻中.”
- 35) 『宜巢續編』「諸病·寢空房客館鬼壓」“寢空房客館鬼壓者, 慎勿急喚, 即咬兩手足大拇指, 徐徐嗅覺. 有大更明, 無火勿明. 皂角末, 吹鼻中, 兩人以竹管吹兩耳.”
- 36) 『宜巢續編』「諸病·氣厥」“氣厥. 身冷, 脈沈, 或爲不正之氣所中, 手足厥冷, 頭面青黑, 精神不守, 口噤, 灸臍中百壯, 皂角末吹鼻中, 蘇合元, 干湯和下.”
- 37) 『宜巢續編』「諸病·血厥」“血厥. 平居無患, 忽然如死, 移時乃蘇, 一名鬱冒. 用瓜蒂 藜蘆 枯礬 雄黃 各等分, 爲末, 每少許吹入鼻中.”
- 38) 『宜巢續編』「癩疹俗名小疫·鄉藥單方治驗四十九種·皂角治驗」“卒病頭痛, 皂角末, 吹鼻不取嚏.”
- 39) 『宜巢續編』「癩疹俗名小疫·鄉藥單方治驗四十九種·霍亂轉筋」“霍亂轉筋, 皂角末吹, 豆許入鼻取嚏, 即安定.”
- 40) 『李石澗經驗方』「上·中惡卒死」“半夏生者, 不拘多少, 用生細末, 每以小許, 吹入鼻中.”
- 41) 오절급병은 죽음이 도달할 수 있는 5가지 병증으로 첫째는 스스로 목을 매는 것, 둘째는 담벼락에 깔린 것, 셋째는 물에 빠진 것, 넷째는 귀신에 쫓겨, 다섯째는 얼어 죽은 것을 일컫는다. (『醫本』「雜方拾遺·救五絶方」“一自縊, 二墻壁壓, 三溺水, 四魘, 五凍死.”)
- 42) 『宜巢續編』「諸病·五絶急病」“凡五絶急病, 半夏末, 水丸約大豆, 納鼻中, 心頭溫者, 一日可活.”
- 43) 『醫本』「雜方拾遺·救五絶方」“...半夏末, 如土豆, 吹鼻中.”
- 44) 『宜巢續編』「諸病·墮落倒壓」“墮落倒壓氣絕, 急以手塞口, 熱小便灌之, 即蘇. 又蘇合元三丸, 溫酒和服. 皂角 半夏末, 吹鼻.”
- 45) 『宜巢續編』「諸病·中風」“中風者, 卒然昏倒不省, 而身溫口多涎, 是也. 以手大指掐人中, 或針百會·合谷, 伏龍肝水調服. 又香油或薑汁灌之. 皂角末吹入鼻中, 半夏末亦可.”
- 46) 『宜巢』「風·中風不識人」“中風不識人·即以半夏末少許, 吹入鼻中. 又懸龍尾, 吹入鼻孔中, 令嚏, 皂角末亦可.”
- 47) 『兩無神編』「通治部·諸風門」“小兒驚風, 生半夏一錢, 皂角半錢, 爲末, 少許吹入鼻中, 即愈.”

줄 수 없었는데, 이 때 조각을 곱게 가루내어 콧속에 넣어 재채기를 2-3차례 유도한 뒤 광증이 조금 멎고 다시 약과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⁴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인사불성 상태에 다양한 약재들이 코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갑작스런 중약이나 가위에 눌린 경우 복룡간을 콧속에 붙어넣으라 하였고⁴⁹⁾, 소아의 중약을 치료할 때는 파뿌리를 향문과 콧속에 집어넣으라 하였고.⁵⁰⁾ 졸중풍에 세신, 조각, 박하, 옹황을 가루내서 콧속에 붙어 넣는 방법도 있으며⁵¹⁾, 세신가루만 넣는 방법도 있다.⁵²⁾ 瘧毒으로 갑자기 죽어가는 경우에는 닥나무 종이를 태워 연기를 쐬어주고⁵³⁾, 소아가 심한 이질로 눈도 입도 완전히 닫아버린 경우 돼지고기를 구워 위에 경분가루를 뿌린 뒤 그 향을 코로 맡게 하는 방법도 기록에 남아있다.⁵⁴⁾

액체상태의 약을 그대로 코에 주입하는 방법도 몇 가지 있다. 중약으로 인한 인사불성에 부추즙을 입과 콧속에 부어줄 수 있고⁵⁵⁾⁵⁶⁾⁵⁷⁾, 좋은 술을 콧속에 넣어주는 방법도 있다. 이때 좋은 술의 경우 그냥 붓기보다는 숨에 적신 뒤 그 즙을 짜서 들어가는 속도를 조절하고, 손발을 잡아서 놀라 움직이지 않게 도우라 하였고.⁵⁸⁾ 또 산후 중풍으로 인해 角弓反張의 상태가 나타날 경우 형개수 볶을 것을 가루내어 동변에 타서 먹이는데, 입을 못 열 경우 콧속에 부어 넣으라 하였고.⁵⁹⁾⁶⁰⁾

중독으로 인해 목구멍이 막히고 입까지 열리지 않는다면

식초를 코에 부어 넣어주고⁶¹⁾,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서도 식초를 코에 들이 부어주라 하였고.⁶²⁾⁶³⁾ 졸중풍으로 위급한 상황이 오면 여로에 약간의 사향을 넣고 김치국물과 섞어 콧속에 부으면 담을 토하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시행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고⁶⁴⁾. 또 목구멍이 막히고 입이 열리지 않을 때는 옹황, 울금, 파두를 식초와 섞어 콧속에 넣기도 하며⁶⁵⁾, 이외에도 동의수세보원에 따르면 상한으로 발광하는 소양인이 증세가 심해져 입이 열리지 않게되자 백호탕을 코를 통해 넣어준 적이 있는데, 환자가 발버둥을 치자 환자를 꼭 붙잡고 약을 주입하는 등 코로 액상 약을 넣는데 발생한 어려움들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다⁶⁶⁾.

이상 언급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인사불성 질환에 쓰인 비훈 요법의 대표 병명과 대표 약재 및 활용법

대표 병명	활용법(대표 약재)
中惡, 客忤, 血暈, 纏喉風, 卒中風, 五絕急病	- 가열로 발생한 증기를 썸(식초)
	- 태워서 연기를 썸(건칠, 파두, 수은훈비방)
	- 가루를 붙어 코에 넣음(조각, 반하)
	- 환을 제각하여 코에 넣음(반하)
	- 약재를 그대로 코에 넣음(파두)
	- 액체를 코에 부어 넣음(식초)

- 48) 『實驗單方』「八十六怪疾」「近四十男, 病痛二十日, 猝發怪症, 齒堅鎖而目張, 手堅舉, 不省人事, 以頭觸壁柱, 壯丁不能據止, 藥與飲食不得納口. 此氣結不通者也. 唐皂角細末, 微納鼻穴, 使出嚏二三次然後, 狂症小止, 又納藥與飲食, 差.”
- 49) 『宜彙續編』「諸病·中惡, 夢壓」「卒中惡及夢壓, 伏龍肝鷄子大, 爲末, 溫水調服, 亦吹鼻中.”
- 50) 『鄉藥集成方』「小兒科·小兒中惡·《食醫心鑑》治小兒中惡, 暴死」「蔥白, 納下部及鼻中, 活.”
- 51) 『醫宗損益』「已集·風·卒中風救急·通關散」「治卒中, 口噤氣塞, 細辛·皂角·薄荷·雄黃 各一錢. 爲末, 每少許吹鼻, 有嚏可治.”
- 52) 『壽世秘訣』「諸風」「暗風卒倒, 不成人, 細辛末, 吹入鼻中.”
- 53) 『袖珍經驗神方』「男婦通治門·暑症·中暑毒」「猝死·楮紙, 捲成柱子, 點火向口鼻薰之, 即活.”
- 54) 『兩無神編』「卷之中·女科·小兒諸病門」「...刮腸痢疾, 噤口閉目至重者, 猪肉一兩, 薄切炙香, 以膩米粉半錢, 鋪上令食, 或置鼻間聞香, 自然要食也.”
- 55) 『診解救急方』「中惡」「...又韭汁灌口鼻中, 皆活.”
- 56) 『兩無神編』「通治部·邪祟門」「忤惡卒死...又擣韭汁, 灌鼻中, 即醒.”
- 57) 『宜彙續編』「癩疹俗名小疫·鄉藥單方治驗四十九種·韭菜治驗」「臥忽不寤, 勿火照, 但痛嚼指頭甲際肉, 唾其面則活, 取韭擣汁, 吹入鼻中, 而冬月則用韭根.”
- 58) 『意方合部』「厥逆部·村救·卒死與尸厥同·卒死 中惡 尸厥」「以綿好酒, 取汁, 令入鼻中, 持手足, 莫令驚動.”
- 59) 『宜彙續編』「婦人門·產後中風反張」「產後中風, 反張不語, 荊芥穗炒末三錢, 童便調服. 口噤灌入鼻中, 即效.”
- 60) 『壽世秘訣』「婦人門·產後諸病」「...用荊芥穗, 微炒爲末, 每服三錢, 豆淋酒下, 或童便服. 口噤則挑齒灌之, 斷噤則灌鼻中, 神效.”
- 61) 『舟村新方 筆寫本』「口」「喉閉, 解毒, 雄黃丸七丸, 茶清下. 若口噤, 醋和灌鼻.”
- 62) 『東醫寶鑑』「雜病篇·救急·救溺水死」「凡溺水死者, 一宿尙可救... 又將醋 半盞灌鼻中.”
- 63) 『丹谷經驗方』「雜病篇九·救急·救溺水死」「凡溺水死者...又, 將醋半盞, 灌鼻中.”
- 64) 『東醫寶鑑』「雜病篇·風·取吐法」「卒中風, 痰壅盛者, 口眼喎斜者, 不能言者, 皆當用吐法...重者一作急, 用藜蘆 五分或三分, 加麝香少許, 爲末, 齧汁調和, 灌入鼻內, 吐痰出.”
- 65) 『東醫寶鑑』「外形篇·咽喉·單乳蛾雙乳蛾喉痺·解毒雄黃元」「治喉閉口噤, 水漿不下, 危急者. 雄黃(水飛)·鬱金 各二錢半, 巴豆 十四粒(去皮油). 右爲末, 醋麪糊和丸菉豆大, 茶清下七丸. 如口噤則以醋磨化, 搯入鼻中, 須臾吐利頑痰, 即醒.”
- 66) 『東醫壽世保元』「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嘗治, 少陽人, 傷寒發狂譫語證... 舌卷動風, 口噤不語, 於是, 而始知六味湯之無能爲也. 急煎白虎湯, 一貼, 以竹管, 吹入病人鼻中下咽, 而察其動靜, 則舌卷口噤之證, 不鮮, 而病人腹中, 微鳴, 仍以兩爐煎藥, 在兩灌鼻, 數三貼後, 病人腹中, 大鳴, 放氣出焉. 三人扶持病人, 竹管吹鼻灌藥, 而病人氣力, 益屈強, 三人扶持之力, 幾不能支當矣. 又在再灌鼻.”

2. 코를 비롯하여 머리, 눈, 인후 등 흉부 이상의 인체 상부에서 발생하는 질환

코를 통한 약재의 흡입은 인체의 다양한 기관 중에서도 주로 머리, 오관, 인후 등 흉부 이상의 인체 상부 기관에 나타난 증상들에 활용되었다. 본고에서 살펴본 자료들만을 두고 보면 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기관은 코였으며, 특히 코피가 멎지 않거나 코에 굳은살이 생겨서 불편할 때 이상의 치료법들이 자주 활용되었다.

우선 코피가 멎지 않을 경우에는 약재를 가루내어 콧속에 붙여넣는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사용된 약재로는 부평가루⁶⁷⁾, 백초상⁶⁸⁾, 백반가루⁶⁹⁾, 산치자⁷⁰⁾, 어린이의 배넛머리 태운 재⁷¹⁾, 고슴도치 가죽을 태운 가루⁷²⁾, 흰 자기가루⁷³⁾ 등이 있다. 액상형태를 코에 부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코피가 많이 나올 때 무즙을 코에 부어주거나⁷⁴⁾, 형개수를 갈아 그 즙을 콧속에 떨어뜨리기도 하였다.⁷⁵⁾ 총백 즙에 소량의 술을 섞어 코에 넣거나⁷⁶⁾, 청상자 즙을 넣기도 하며⁷⁷⁾⁷⁸⁾, 부추뿌리를 즙 내어서도 사용하는데 이때는 미리 즙을 내어 병에 담고 이것을 우물에 담가놔다가 필요

할 때 건져내어 코에 14방울정도 넣어주라고 하였다.⁷⁹⁾⁸⁰⁾

코에 굳은살 같은 덩어리가 생겨서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에도 다양한 약재들이 사용되었다. 현삼가루⁸¹⁾, 세신가루⁸²⁾, 백반과 봉사가루⁸³⁾, 안식향과 백단향, 당목향 가루⁸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외에 약재 여럿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목련꽃을 가루내어 사향과 섞은 뒤 과뿌리에 찍어서 코에 꽂아 넣는 방법⁸⁵⁾⁸⁶⁾이나, 신이, 세신, 목통, 목향, 백지, 행인을 가루내고 이걸 양 골수와 돼지기름에 섞어 고약을 만든 뒤 용벼와 사향을 더 넣고 환으로 만들어 콧속을 막는 방법⁸⁷⁾, 과체, 감수, 백반, 우렁이 껍질, 초오를 가루내고 참기름을 섞은 뒤 환을 만들어 콧속에 넣고 군살에 닿게 하는 방법⁸⁸⁾⁸⁹⁾ 등이 있다.

코막힘에도 코를 통해 흡수시키는 치료법들이 사용되었다. 세신을 콧구멍에 넣거나 생강가루 환을 코에 넣는 방법⁹⁰⁾, 소량의 조각을 콧속에 붙여 넣는 방법⁹¹⁾, 통초 세신 부자가루를 꿀에 섞고 숨에 싸서 넣는 방법⁹²⁾, 석창포 조협 가루를 숨에 싸서 자기전 코에 넣는 방법⁹³⁾, 과체가루를 숨에 싸서 넣거나 그대로 넣는 방법⁹⁴⁾⁹⁵⁾, 마혜 태운 재를 코에 넣는 방법⁹⁶⁾, 과체와 여로 가루를 쓸개즙에 개어 숨에

67) 『宜彙續編』「癩疹俗名小疫·鄉藥單方治驗四十九種·浮萍治驗」“鼻衄不止，浮萍末吹之。”
 68) 『宜彙續編』「癩疹俗名小疫·鄉藥單方治驗四十九種·百草霜治驗」“鼻中出血，用百草霜一字，吹入鼻孔。”
 69) 『宜彙續編』「癩疹俗名小疫·鄉藥單方治驗四十九種·白礬治驗」“衄血不止，枯礬末，吹之妙。”
 70) 『意方合部』「鼻部·村家救急方·衄血·血不止欲死」“山桅子體圓而小者，爲山桅。體長而大者，爲伏口山桅，不入藥用。圓而小者，良·不拘多少，燒存性，吹入鼻中，即止。”
 71) 『意方合部』「鼻部·三意一驗方·衄血」“小兒胎髮，燒灰，吹之。”
 72) 『意方合部』「鼻部·三意一驗方·衄血·衄不止」“蝟皮燒作末，吹鼻中。”
 73) 『兩無神編』「通治部·失血門」“鼻衄不止，白瓷器末，吹少許，立止。”
 74) 『宜彙』「失血·衄血多出」“衄血多...蘿菔汁，灌之鼻中。”
 75) 『意方合部』「鼻部·村家救急方·衄血·衄血」“荊芥穗研服。蘿菔上半段，搗取汁，服之，又滴鼻中。”
 76) 『鄉藥集成方』「鼻衄門·鼻衄·《聖濟總錄》治鼻衄血」“蔥白一握，搗絞取汁，投酒少許，點三兩滴，入鼻，差。”
 77) 『鄉藥集成方』「鼻衄門·鼻衄不止·《廣利方》治鼻衄，出血不止」“青箱子汁，灌鼻中。”
 78) 『意方合部』「鼻部·三意一驗方·衄血·衄不止」“青箱子汁三合，灌鼻中。”
 79) 『鄉藥集成方』「傷寒門·傷寒鼻衄·治時氣鼻衄，日夜不止，面色如金黃」“韭根一握，搗取汁，瓶中盛，以索懸於井中良久，急取，出滴二七，滴於鼻中，即止。”
 80) 『鄉藥集成方』「熱病論·熱病鼻衄·治熱病衄血，日夜無度，身面如金黃」“韭根一握，搗絞取汁，以罐索投於井中深處，良久，急取出，瀝水相和，滴二七滴於鼻中差。”
 81) 『宜彙』「鼻病·鼻中生瘡」“鼻內生瘡，玄蓼末塗之。或水浸軟，塞之。”
 82) 『宜彙』「鼻病·鼻中瘰肉」“鼻中瘰肉，細辛末，頻吹。”
 83) 『驗方新篇』「附錄·鼻部」“鼻痔，枯白礬 研砂末，吹入。”
 84) 『驗方新篇』「附錄·鼻部」“鼻中生肉，安息香 唐木香 白檀香，作末，吹入當處。”
 85) 『宜彙』「痘疹·痘疹·痘後雜症下」“木筆散。辛夷花，加麝香少許，以葱白蘸，入鼻中數次，即通。”
 86) 『醫門寶鑑』「痘疹」“治痘後鼻塞，辛夷花爲末，加麝香少許，以葱白蘸入鼻中。”
 87) 『醫宗損益』「卯集·鼻·鼻痔鼻瘡·辛夷膏」“治鼻中瘰肉，窒塞疼痛。辛夷 二兩，細辛·木通·木香·白芷·杏仁 各五錢。右以羊髓·豬脂二兩和藥，于石器內，慢火熬成膏，取赤黃色，放冷，入龍腦·麝香 各一錢，爲丸綿裹，塞鼻中，數日脫落即愈。”
 88) 『醫宗損益』「卯集·鼻·鼻痔鼻瘡·瓜礬散」“去鼻痔。瓜蒂 四錢，甘遂 一錢，枯白礬·螺殼灰·草烏尖 各五分。右末，麻油調丸，如鼻孔大。每日一次，以藥納鼻內，令達肉上，其痔化爲水，肉皆爛下，即愈。”
 89) 『百病總括』「篇下·外形·鼻爲肺竅善受風，飢寒鼻淵及鼽癢·瓜礬散」“瓜蒂四錢，甘遂一錢，枯白礬 田螺殼 草烏尖 各五分，右爲末，麻油調作丸，如豆大。每日納鼻痔上，則痔肉自化爲水，而爛去不痛。治鼻痔。”
 90) 『實驗單方』「七鼻部」“鼻塞症，細辛納鼻孔，又干末調蜜作小丸，納鼻中。”
 91) 『袖珍經驗神方』「卷之下·男婦通治門·第四十三章 鼻病·鼻塞不通」“牙阜角小許，吹入鼻中，差。”
 92) 『袖珍經驗神方』「卷之下·男婦通治門·第四十三章 鼻病·鼻塞不通」“通草 細辛 附子末，蜜調綿裹，納鼻中。”
 93) 『鄉藥集成方』「鼻門·鼻塞塞，氣息不通·《聖惠方》菖蒲散」“右搗細，羅爲散，每用半錢，以綿裹，臨時時塞鼻中”

싸서 코에 넣는 방법⁹⁷⁾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음식물이 코에 들어가서 아플 때에는 소기름 덩이를 콧속에 넣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 때에는 소기름이 녹으면서 음식물과 함께 코 밖으로 나오면 된다고 하였다.⁹⁸⁾ 또 코에 창증이 생기면 행인을 급게 갈고 거기에 사람 젖을 섞어 콧속에 붙이라 하였다.⁹⁹⁾¹⁰⁰⁾

코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부위는 머리, 그 중에서도 두통의 치료이다. 두통의 경우 고본, 세신, 백지, 신이화를 섞어 가루낸 다음 담배처럼 말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코에 쐬는 방식이 남아있는데, 제반 두통에 하루에 2번씩 하면 차도를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⁰¹⁾ 또 지롱과 유향 섞은 가루를 사용한 방법도 있는데, 이 역시 담배처럼 말아서 불을 붙이고 코에 연기를 쐬어 주면 된다. 이 기록에도 입에 찬물을 머금고 있으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화상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¹⁰²⁾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코에 가루를 넣는 방법도 남아있는데, 먼저 조각가루를 코에 붙여 넣는 방법이 있다. 『동의보감』에 나와있는 이 방법은¹⁰³⁾ 『의휘』에서도 가루를 콧속에 붙여넣는 것만으로 통증이 멎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¹⁰⁴⁾, 『언해구급방』이나 『광제비급』, 『의방합부』에서는 이를 통해 재채기를 유도하여 통증을 멎게 한다고 하였다.¹⁰⁵⁾¹⁰⁶⁾¹⁰⁷⁾

편두통이나 정두통에 망초를 코에 넣어주는 방법도 남아있는데, 이때 왼쪽 머리가 아프면 오른쪽 코에, 오른쪽 머리가 아프면 왼쪽 코에 약재를 넣으라고 하였다.¹⁰⁸⁾ 옹황과 세신을 코에 넣는 방법도 있는데 이 역시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에,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에 붙여넣도록 하였다.¹⁰⁹⁾ 이처럼 편두통의 경우 방향을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맛이 쓴 호로의 씨를 갈아 콧속에 넣는 방법은 왼쪽 머리가 아프면 왼쪽에 오른쪽 머리가 아프면 오른쪽에 넣으라고 하였고,¹¹⁰⁾ 염초나 초석가루를 넣으라는 기록에는 환부 반대편 코에 넣으라고 하였다.¹¹¹⁾¹¹²⁾

두통에 참외꼭지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의가비결』과 『양무신편』에서는 참외꼭지 가루 혹은 과채산을 콧속에 넣어 누른 물이 나오면 두통이 낫는다고 하였으며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濕이 많은 사람의 두통으로 설명하고 있다.¹¹³⁾¹¹⁴⁾¹¹⁵⁾ 다양한 약재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로 유향, 몰약, 천궁, 석용황, 백지각, 망초를 섞어 가루로 만들고 이를 콧속에 넣는 방법이 기록에 남아있으며¹¹⁶⁾, 미릉골과 눈 주위까지 아픈 경우에는 천궁, 울금, 작약, 형개, 박하, 망초, 유향, 몰약, 용뇌를 가루내서 콧속에 집어넣으면 치료가 된다고 하였다.¹¹⁷⁾¹¹⁸⁾

가루를 넣는 것 외에 약재 덩어리나 액상을 넣는 치료법

- 94) 『鄉藥集成方』 「鼻門·鼻塞塞, 氣息不通·苦葫蘆子腦瀉散」 “治鼻塞, 眼昏頭疼腦悶。又方 瓜蒂末, 綿裹塞鼻中。”
- 95) 『鄉藥集成方』 「鼻門·鼻中生瘻肉·《千金方》治鼻中瘻肉, 不聞香臭」 “瓜丁細末, 如小豆許, 吹入鼻中, 必消。如此三四度, 綿裹塞鼻中, 亦佳”
- 96) 『鄉藥集成方』 「鼻門·鼻塞塞, 氣息不通·《經驗方》治鼻塞」 “麻鞋燒灰, 吹鼻中, 立通。”
- 97) 『鄉藥集成方』 「鼻門·鼻塞塞, 氣息不通·瓜蒂散」 “治鼻塞, 不聞香臭。瓜蒂 藜蘆 各一錢。○ 右搗細羅爲散, 每用半錢, 和狗膽汁, 綿裹, 塞鼻中, 日三易之。”
- 98) 『兩無神編』 「上部·鼻病門」 “食物入鼻, 個個作痛, 以牛膏一棗大, 納鼻中吸入, 膏消則物隨出也。”
- 99) 『意方合部』 「鼻部·三意一驗方·鼻中瘻」 “杏仁研細, 人乳和傳。”
- 100) 『宜彙』 「鼻病·鼻中瘻」 “鼻中瘻此肺火也, 杏仁油和鹽, 塗之。杏仁搗, 和人乳, 入屢次。”
- 101) 『袖珍經驗神方』 「男婦通治門·第三十九章·頭病·諸般頭痛薰法」 “古本 細辛 白芷 辛夷花 等分末, 每二錢重, 用紙四條卷筒, 將火點着, 以煙薰鼻, 日薰二次差。”
- 102) 『兩無神編』 「卷之下·上部·頭病門」 “...又地龍去土焙 乳香 等分, 爲末, 每以一字作紙燃, 燈上, 以鼻熏之。口嚙冷水, 有涎吐出, 仍以好茶一杯徐呷, 神效。”
- 103) 『東醫寶鑑』 「外形篇·頭·單方·皂莢」 “除頭風頭痛。作末吹鼻中, 又可爲沐藥。”
- 104) 『宜彙』 「頭痛·卒頭痛痰牽引腦漏」 “卒頭痛, 皂角末, 吹入鼻中, 卽止。”
- 105) 『診解救急方』 「卷上·頭痛」 “卒頭痛如破...又皂角末吹鼻, 令嚏亦止。”
- 106) 『廣濟濟效』 「鄉藥單方治驗·皂角治驗」 “卒病頭痛, 皂角末, 吹鼻, 取嚏。”
- 107) 『意方合部』 「頭部·三意一驗方·頭風·卒頭痛」 “皂莢末, 吹鼻中, 令嚏卽止。”
- 108) 『宜彙』 「頭痛·偏正頭痛」 “偏正頭痛, 芒硝少許, 吹入鼻中, 立愈。左痛吹右, 右痛吹左。”
- 109) 『意方合部』 「頭部·三意一驗方·頭風·耳中如抽筋者」 “雄黃 細辛, 等分細末, 每吹入鼻左右取。”
- 110) 『意方合部』 「頭部·村家救急方附下·頭痛·風頭」 “苦葫蘆朮末, 子另末, 小許吹鼻中, 左痛則左鼻, 右則右, 極妙。”
- 111) 『東醫寶鑑』 「外形篇·頭·噓鼻法」 “偏正頭痛, 硝石末少許, 吹入鼻中, 立愈。左痛吹右, 右痛吹左, 立愈。雷公云, 腦痛欲亡, 鼻投硝末者, 是也。”
- 112) 『意方合部』 「頭部·三意一驗方·頭風·風頭痛」 “焰硝或硝石, 爲末少許, 吹入鼻中不病邊。”
- 113) 『醫家秘訣』 「卷之上·頭部」 “頭額痛者, 兩太陽痛者, 令病人嚙水一口하고 以苾蒂散。見下一字吹入鼻中, 出黃水卽愈。”
- 114) 『兩無神編』 「上部·頭病門」 “濕熱頭痛, 黑牽牛七枚, 砂仁一粒, 研末, 井水調汁, 仰灌鼻中, 待涎出卽愈。又以苾蒂末一字, 嗅入鼻中, 口含冷水, 取出黃水愈。”
- 115) 『東醫寶鑑』 「外形篇·頭·吐法」 “濕家頭痛, 鼻塞聲重, 令病人先嚙水一口, 將瓜蒂散末一字, 噓鼻內, 出黃水爲度。”
- 116) 『宜彙』 「頭痛·諸頭痛頭風」 “諸頭痛不可忍頭風, 上下齒疼痛, 赤眼, 腦瀉, 邊頭痛, 耳鳴, 鼻塞聲重等症, 乳香 沒藥 川芎 石雄黃 白芷 各二錢, 芒硝五錢, 右極細末, 令病人仰臥, 口含冷水, 取藥少許, 搗入鼻內, 神效。”
- 117) 『東醫寶鑑』 「外形篇·頭·眉稜骨痛·上清散」 “治風頭痛, 眉骨, 眼眶俱痛不可忍。川芎·鬱金·芍藥·荊芥·薄荷·芒硝 各二錢半, 乳香·沒藥 各五分, 龍腦 二分半。右爲末, 每取一字, 鼻內搗之。”

도 있다. 『단방비결』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파뿌리를 귀와 코에 꽂아 놓으면 두통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¹¹⁹⁾ 『의방합부』에서는 피마자와 대추를 섞어 콧속에 넣는 방법을 설명하였는데, 편두통에 이 방법을 쓰면 시간이 지나면서 맑은 콧물이 나오면서 통증이 멎는다고 하였다.¹²⁰⁾

한편 두통에는 생무즙을 사용하는 치료법은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¹²¹⁾¹²²⁾. 『동의보감』과 『이석간경험방』에서는 편두통에 조개껍질 1개 분량의 무즙을 코에 흘려 넣는데 왼쪽 편두통에는 오른쪽에, 오른쪽 편두통에는 왼쪽에 넣는다고 하였다.¹²³⁾¹²⁴⁾ 또 편두통에 부추즙이나 마늘즙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좌우가 엇갈리게 사용하라고 하였다.¹²⁵⁾¹²⁶⁾ 『의회』와 『양무신편』에서는 두통에 박즙을 사용하였는데, 박속에 즙을 내어 대롱을 사용하여 콧속에 넣는 방식이다.¹²⁷⁾¹²⁸⁾ 그밖에도 복합처방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필발과 저담즙, 천궁, 백지, 고본, 청대, 현호색을 가루내어 섞은 뒤 검실만 하계 환을 만들고 한알을 물에 녹여 환자 콧속에 넣는 방법이 기록에 남아있다¹²⁹⁾.

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속눈썹이 눈에 들어갔을 때 석곡, 천궁 가루를 코에 넣어 재채기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으며¹³⁰⁾, 예막이 생겼을 때 호유와 청대 천궁 가루를 섞어 차가운 물은 머금은 상태에서 코에 붙여넣는 방법이 있다.¹³¹⁾¹³²⁾ 눈에 먼지

가 들어간 경우 석창포 가루를 코에 넣는데 왼쪽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오른쪽에, 오른쪽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왼쪽 코에 넣으라고 하였으며,¹³³⁾ 눈병으로 눈이 붉고 아파져 올 때 고량강 가루를 코에 넣고 재채기가 나오거나 코피가 나오면 낫는다고 하였다.¹³⁴⁾ 그 외에도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불편할 때에 연유기름이나 돼지기름을 아픈 쪽 콧속에 넣는 방법이 남아있다.¹³⁵⁾

치통을 치료하는 데에도 코로 약을 흡입하는 방식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풍치나 충치로 아플 때 녹인 밀랍과 썩을 태운 연기를 쐬는 방법이 있는데, 연기를 코로 마신 뒤 입안 가득 연기를 채우고 잠시 후 숨을 내뿜으며 통증이 멎는다고 하였다.¹³⁶⁾ 그밖에 치통 치료에 신묘한 방법이라며 『동의보감』에 언급된 치료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옹황, 유향, 호초, 사향, 필발, 양강, 세신을 가루내어 코에 붙여 넣으면 치통이 멎는다고 하였다.¹³⁷⁾¹³⁸⁾ 그 외에도 옹황, 몰약, 세신을 가루내서 좌측이 아프면 좌측 코와 우측 귀에, 우측이 아프면 우측 코와 좌측 귀에 약을 붙여 넣는 방법도 나와있다.¹³⁹⁾¹⁴⁰⁾ 눈 내리는 겨울에 핀 국화를 가루로 만들어 밥을 섞은 뒤 환으로 만들어 코에 이 환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도 치통이 낫는다고 하였다.¹⁴¹⁾

목이나 인후두 부위의 질환에 쓴 경우로는 앞서 전후풍에 파두기름을 사용한 방법도 급성 인후 증상에 쓴 방법으로

118) 『醫門寶鑑』 「頭風」 “治眉稜眼眶俱痛。川芎·鬱金·赤芍藥·荊芥·薄荷·芒硝 各二錢五分，乳香·沒藥 各五分，龍腦 二分半。右爲末，每一字，鼻內搯之。”
 119) 『單方秘要』 「經驗新編·頭部·頭痛」 “蔥白，耳鼻插，神效。”
 120) 『意方合部』 「頭部·村家救急方附下·頭痛·偏頭痛」 “草麻子五錢 大棗十五箇去核，泥塗於紙上，以筋一隻卷之，拔筋納鼻中，良久，出清水，痛止。”
 121) 『兩無神編』 「上部·頭病門」 “又生萊菔汁一蜆殼，仰臥隨左右注鼻中，神效，活人無數。”
 122) 『宜彙』 「頭部·風厥逆」 “頭痛仍發齒痛，名曰風厥逆。葶汁灌鼻。方見同編上，并治偏頭風。”
 123) 『東醫寶鑑』 「外形篇卷之一·頭·嗜鼻法」 “偏頭痛，取生蘿菔汁一蜆殼，仰臥注鼻中，左痛注左，右痛注右，左右痛俱注之，神效，數十年患，皆一二注而愈。”
 124) 『李石澗經驗方』 「頭部·偏頭痛方」 “用生蘿菔汁一蜆殼，仰臥注鼻，左痛注左，右痛注右，俱痛俱注。”
 125) 『四醫經驗方』 「頭部·偏頭」 “非汁左痛吹入右鼻，右右吹即差，蒜汁亦可。”
 126) 『意方合部』 「頭部·三意一驗方·頭風·耳中如抽筋者」 “非汁，滴入鼻左右取。”
 127) 『宜彙』 「頭部·風痰頭痛」 “風痰頭痛，苦瓠膜半박속取汁，以葶管灌入鼻中，其氣上沖腦門，須臾，惡涎流下，立差除根。”
 128) 『兩無神編』 「上部·頭病門」 “風痰頭痛，苦瓠膜取汁，以管灌入鼻中。其氣上沖腦門，惡涎流下，立愈除根。”
 129) 『東醫寶鑑』 「外形篇·頭·嗜鼻法」 “治風涎，偏正頭痛，葶撥末三錢，以猪膽汁拌，再入膽內候乾，入川芎·白芷·藁本·青黛·玄胡索 各二錢爲末，水和爲丸如芡實大，令病人臥，用一丸水化灌入鼻中，覺藥味至喉少酸，令病人坐之，口咬銅錢一箇，當涎出盈盆即愈。名一粒金。”
 130) 『廣濟秘笈』 「七竅病耳目口鼻·眼睛突出」 “眼毛倒睫，石斛川芎爲末，口含嗜鼻，得嚏日二次。”
 131) 『廣濟秘笈』 「雜病·眼疾·腎膜」 “...嗜鼻去腎目赤，腫應澁，胡荽二錢，青黛，川芎各一錢末，口含冷水，吹鼻，小許。”
 132) 『宜彙續編』 「諸病·去腎」 “嗜鼻去腎。目赤腫應澁，胡荽二錢，青黛 川芎 各一錢，末，含冷水，吹鼻小許。”
 133) 『宜彙續編』 「痕疹俗名小疫·鄉藥單方治驗四十九種·菖蒲治驗」 “飛絲入目，石菖蒲搗碎，左目塞右鼻，右目塞左鼻，神效。”
 134) 『宜彙』 「眼目·眼暴赤」 “眼疾眼暴赤，火眼腫痛，良薑末，管取入鼻，取嚏一作吹，或彈出鼻血，即效。”
 135) 『廣濟秘笈』 「七竅病耳目口鼻·眼睛突出·飛絲入眼付入食」 “飛絲入眼...又酥油，隨左右，小許入鼻中，仰頭，令流入目中，即出，猪油，如上法，亦效。”
 136) 『兩無神編』 「卷之下·上部·牙齒門」 “風蟲牙痛...又化蠟少許，攤紙上，鋪艾，以箸捲成筒，燒煙，隨左右薰鼻，及煙令使滿口，呵氣，即止痛。神效。”
 137) 『東醫寶鑑』 「外形篇·牙齒·塞耳鼻止牙痛方·哭來笑去散」 “治牙齒痛神效。雄黃·乳香·胡椒·麝香·葶撥·良薑·細辛。右等分爲末。每用少許，吹男左，女右鼻中。”
 138) 『百病總括』 「外形·風則腫痛齶蟲生·哭來笑去散」 “雄黃 乳香 胡椒 射香 葶發 良干 細辛，右等分爲末，每用少許，吹男左女右鼻中，立止痛。”
 139) 『東醫寶鑑』 「外形篇·牙齒·塞耳鼻止牙痛方·治牙疼方」 “雄黃·沒藥 各一錢，細辛 半錢。右爲末。若左邊痛，用少許搯入左鼻，又吹入右耳。若右邊疼，搯右鼻，又吹入左耳。”
 140) 『廣濟秘笈』 「七竅病耳目口鼻·齒痛，被打欲落」 “...諸般齒痛，乳香，沒藥，各一錢，細辛，減半爲末，小許吹鼻中，患左吹右，患右吹左。”
 141) 『意方合部』 「齒門·三意方·齒痛·右齒痛，左齒痛」 “雪來寒菊花，搗末，飯爲丸，鼻中吹一粒，齒痛立時蠲。”

볼 수 있으며, 잘 낫지 않는 咽喉에 수은, 유황 몰약, 석유향, 침향, 주사 등을 섞고 태워 코에 연기를 쐬게 하는 방법도 남아있는데, 이 방법 역시 앞서 전후풍에서 살펴보았던 수은후비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¹⁴²⁾ 목에 물고기 가시가 걸렸을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마늘을 콧속에 넣는 방법이 있으며¹⁴³⁾¹⁴⁴⁾¹⁴⁵⁾, 다음으로는 조각가루를 콧속에 넣는 방법이 있다¹⁴⁶⁾¹⁴⁷⁾. 두 가지 방법 모두 원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있지는 않으나 재채기를 유도하여 가시가 나오도록 한게 아닌가 싶다.

딸꾹질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 딸꾹질이 오래도록 멎지 않을 때 유황을 담배처럼 말아 그 연기를 코에 쐬여주는 방법이 있다.¹⁴⁸⁾ 그 외에도 딸꾹질을 하는데 맥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반하, 생강, 죽여가루를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¹⁴⁹⁾. 또 조각가루를 사용하여 재채기를 유도함으로써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¹⁵⁰⁾¹⁵¹⁾, 『동의보감』과 『언해구급방』에서는 특히 傷寒으로 인한 딸꾹질이 멈추지 않을 때는 조각가루를 넣어 재채기를 유도하라고 하였다.¹⁵²⁾¹⁵³⁾

하품을 하다가 턱이 빠지는 경우에도 조각가루를 코에 붙여 넣어 치료를 하는데, 이 역시 재채기를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빠진 턱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려는 방법이다. 술을 잔뜩 먹여서 잠이 들게 한 다음 조각가루를 붙여 넣어 재채기를 시키라고 하였는데, 술을 먹이는 행위는 빠진 턱을 원래 자리로 넣는 동안 발생할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¹⁵⁴⁾¹⁵⁵⁾¹⁵⁶⁾

그 밖에 혀가 늘어난 채 혀를 넣지 못한 상황에서는 피마를 코에 넣거나,¹⁵⁷⁾ 혀에서 피가 잘 멎지 않을 때 피마

자유 적신 종이를 태워서 연기를 쐬는 방법¹⁵⁸⁾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상 언급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두면, 오관, 인후 질환에 쓰인 비훈 요법의 대표 병명과 대표 약재 및 활용법

부위	대표 병명	활용법(대표 약재)
코	鼻衄, 鼻瘡, 鼻塞	- 가루를 붙여 코에 넣음(부평, 백초상, 백반, 산치자, 현삼, 세신) - 액체를 코에 부어 넣음(나복즙, 청상자즙) - 환을 제작하여 코에 넣음(신이, 세신, 과체, 감수) - 숨에 싸서 넣는 방법(통초, 과체)
머리	頭痛	- 태워서 연기를 쐬(고본, 세신, 백지, 지룡, 유황) - 가루를 붙여 코에 넣음(조각, 망초, 옹황, 세신) - 약재 덩어리를 코에 넣음(파뿌리, 대추) - 액체를 코에 부어 넣음(나복즙, 부추즙, 마늘즙, 박즙)
눈	眼毛倒睫, 瞖膜	- 가루를 붙여 코에 넣음(석곡, 천궁),
치아	牙齒痛	- 태워서 연기를 쐬(밀랍, 쑥) - 가루를 붙여 코에 넣음(옹황, 유황, 호초, 사향) - 환을 제작하여 코에 넣음(국화)
인후	咽喉, 魚骨哽	- 태워서 연기를 쐬(수은, 유황 등) - 약재 덩어리를 코에 넣음(마늘) - 가루를 붙여 코에 넣음(조각)
기타	咳逆, 失欠脫頰, 重舌	- 태워서 연기를 쐬(유황) - 가루를 붙여 코에 넣음(조각) - 약재 덩어리를 코에 넣음(파두)

142) 『宜彙』 「咽喉·咽瘡」 「治一切喉痺, 咽瘡·楊梅, 多年不差, 同治. 水銀三錢, 以木麥末三錢, 童便和勻, 細磁器中, 堅執柳匙, 頻頻攪之爲度, 乳香 沒藥 石雄黃 沈香 各一錢, 孩兒茶 朱砂 射香 各五分. 右極細末, 和勻陰乾, 分作三蠟心紙, 每一條, 熏鼻, 神效.”

143) 『醫宗損益』 「卯集·咽喉·魚骨鯁鯁骨鯁」 「凡治鯁... 若噎即出. 魚骨鯁, 以蒜納鼻中, 即出.”

144) 『醫本』 「雜方拾遺·救荒·生粟」 「魚鯁骨不出, 以蒜納鼻中, 即出.”

145) 『四醫經驗方』 「雜病·誤吞諸物」 「魚骨鯁... 蒜內鼻中, 即出.”

146) 『廣濟秘笈』 「咽喉·魚骨硬」 「魚骨硬, 皆以類治之... 又皂角末, 吹鼻中.”

147) 『宜彙續編』 「癢疹俗名小疫·鄉藥單方治驗四十九種·皂角治驗」 「魚骨硬咽, 皂角末吹鼻取嚏.”

148) 『東醫寶鑑』 「雜病篇·咳嗽·賦法·一方」 「治咳逆久不止. 將乳香紙捲作筒, 燒烟熏鼻中, 吸之.”

149) 『百病總括』 「雜病·嘔吐屬胃有寒熱·人蔘復脈湯」 「半夏 白朮 各一錢半, 陳皮 白茯苓 人蔘 麥門冬 竹茹 五味子 各一錢, 甘草炙五分. 治效逆無脈. 又方, 半夏五錢, 生干一兩, 竹茹一握煎服, 用末吹鼻二三度.”

150) 『廣濟秘笈』 「咽喉·咳逆」 「咳逆... 又皂角末, 吹鼻中, 得嚏止, 復作, 連用.”

151) 『宜彙』 「呃逆·久病咳逆」 「久病咳逆, 半夏二錢, 干梨製, 濃煎水一兩兒, 飲下, 即止. ○皂角末吹鼻, 得嚏, 百餘度止.”

152) 『東醫寶鑑』 「雜病篇·咳嗽·取嚏法」 「一人患傷寒將愈, 忽患咳逆, 百藥無效. 遂用皂角末吹鼻, 得嚏而止, 少時又吃, 又吹又止. 凡百餘次, 自是漸疏, 二三日而止. 此合靈樞草刺鼻嚏之法同.”

153) 『診解救急方』 「咳逆」 「傷寒及久病得咳逆... 又皂角末吹鼻, 得嚏而止.”

154) 『診解救急方』 「失欠脫頰」 「因呵欠牙車嗟跌, 口不能開合, 水漿不入, 以致不救, 取酒飲令人大醉, 睡中吹皂角末入鼻令嚏, 即自正.”

155) 『春鑑錄』 「春鑑坤·口」 「欠伸頰車蹉跌不能合, 以其人飲酒大醉睡中吹皂角末, 搯鼻茶嚏即止. 又以兩手牽其頰以漸推之, 則愈, 當其好.”

156) 『東醫寶鑑』 「外形篇·口舌·失欠脫頰」 「凡欠伸頰車蹉跌, 但開不能合, 以酒飲令大醉, 睡中吹皂角末, 搯其鼻, 令嚏即自正.”

157) 『廣濟秘笈』 「七竅病耳目口鼻·舌腫滿口, 重舌, 重腭, 舌緩, 舌出, 舌脹, 舌出血, 舌鑽孔, 舌風舞, 舌瘡消蝕, 舌下瘡, 舌上瘡, 舌生芒刺, 舌斷」 “... 傷寒後, 舌出數寸, 龍腦膠之. 又舌出不收, 巴豆一枚, 紙裹納鼻中, 自收.”

158) 『宜彙續編』 「癢疹俗名小疫·鄉藥單方治驗四十九種·蓖麻子治驗」 「舌上出血, 蓖麻子油紙燃燒, 煙熏鼻中, 自止.”

3. 출산과 관련된 여성 질환

여성 질환에서의 활용은 이미 앞서 위급질환에서 언급한 血暈을 비롯하여 陰脫이나 출산 시 태반이 잘 나오지 않는 급증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오늘날 유선염으로 이해해볼 수 있는 吹乳나 혈훈예방을 위한 방법으로도 기화된 물질을 코로 흡입하는 치료법이 활용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음탈이다. 음탈에는 여러 의서에서 비교적 반복적으로 동일한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름을 종이에 묻혀 불을 붙인 뒤, 거기서 나오는 연기를 산모의 코에 쏘이는 방법이다. 『향약집성방』에서는 참기름을 종이에 축축하게 적서 불을 붙였다가 끄고, 이때 발생한 연기를 산모에게 쏘여주라고 하였으며¹⁵⁹⁾, 그 외에 『춘감록』, 『의휘』 등의 의서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되 기름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¹⁶⁰⁾¹⁶¹⁾¹⁶²⁾

음탈에 전갈을 볶아서 가루 내고 이것을 콧속에 넣는 방법도 기록에 남아있다.¹⁶³⁾ 그 외에도 조각가루를 콧속에 넣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는 대야에 따뜻한 참기름을 담고 출산한 여성을 그 대야에 앉혀 밥 한번 먹을 정도의 시간 동안 앉아있게 한 뒤, 조각가루 조금을 콧속에 넣어 넣어 재채기를 나오게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¹⁶⁴⁾¹⁶⁵⁾¹⁶⁶⁾ 이 때 조각가루대신 반하가루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¹⁶⁷⁾

그 외에 출산 시 태반이 잘 안 나올 경우 초지를 태워서 코에 연기를 쏘는 방법이 있으며¹⁶⁸⁾, 취유에 반하냄새를 맡게하거나,¹⁶⁹⁾ 폐모가루를 콧속에 넣어넣으면 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¹⁷⁰⁾ 또 혈훈을 예방하는 방법도 나와있는데, 이 경우는 혈훈을 치료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식초를 사용

한다. 식초를 코에 바르거나 식초 바른 숯과 태운 칠기를 혼증해서 코에 쏘여주기를 3일 정도 하면 혈훈이 예방된다고 하였다.¹⁷¹⁾

이상 언급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출산 관련 질환에 쓰인 비훈 요법의 대표 병명과 대표 약재 및 활용법

대표 병명	활용법(대표 약재)
血暈, 陰脫, 吹乳	- 가열로 발생한 증기를 썸(식초) - 태워서 연기를 썸(참기름) - 가루를 붙여 코에 넣음(전갈, 조각, 반하, 폐모)

4. 기타 몇몇 피부 질환과 전염병 예방 등

이외에도 코를 통해 약을 흡입하는 치료법이 활용된 질환들로는 피부질환, 특히 잘 낫지 않는 피부질환이 있다. 오랫동안 낫지 않는 각종 창증에 용뇌, 옹황, 백초상, 주사 등을 수은과 섞어서 종이 심지에 넣은 다음 이불 속에 환자를 바로 앉혀 놓고 심지 태운 연기를 콧속으로 넣어 연기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못하게 하는데, 이때도 입에 물을 머금고 있으라고 하였다.¹⁷²⁾ 각종 종기에 백초상과 수은, 그리고 백석을 섞은 다음 이를 태운 연기를 코에 혼증하는 방법¹⁷³⁾, 양매창에 유황 몰약 호동루 등의 가루를 혼합하여 그 연기를 사용하는 방법¹⁷⁴⁾ 등이 있으며, 『동의보감』에는 흑연 수은 주사 유황 몰약 혈갈 옹황 침향을 사용하여 연기를 쏘게 하는 방법¹⁷⁵⁾이 나온다. 이 중 호동루를 사용한

159) 『鄉藥集成方』「産難門·盤腸産·《婦人大全良方》治子腸不收」“大紙撚，以潤了，點燈吹滅，以烟熏産婦鼻中，腸即上矣。”
 160) 『春鑑錄』「坤·産後諸症」“又香油五斤煎熱，盛盆坐其中一食頃，以皂角末吹鼻中即效。又以大紙撚蘸油，點火取滅，以煙薰産母鼻，即止。”
 161) 『宜藥續編』「婦人門·産后陰脫」“産後陰脫腫痛…又大紙撚，熊油點火，吹滅，薰母鼻，即上。”
 162) 『宜藥』「婦人·産後諸證·陰脫」“産後陰脫…大紙撚，拌法油，點火遠而熏鼻，撚滅，即效。”
 163) 『宜藥續編』「婦人門·子腸不收」“子腸不收，全蠟炒研，含水，鼻中嚙之，立收。”
 164) 『鄉藥集成方』「産後門·産後陰脫 玉門不閉·《斗門方》治産後陰脫不收」“油 五升，煉熟，以盆盛候溫，却令産婦坐油盆中，約一食頃久，用皂角灸令脆，去皮爲末，少許吹入鼻中，令作嚏，立差神效。”
 165) 『東醫寶鑑』「雜病篇·婦人·産後諸證·産後陰脫」“一法，香油五斤，煎熱盛盆，坐其中一食頃，以皂角末，吹鼻作嚏，即收。”
 166) 『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 卷之四·香油治驗」“産後，生腸不收，用香油，煉熟，以盆盛，候溫，却令産婦，坐油盆中，若一頓飯久，用皂角末少許，吹鼻中，令作嚏，立上神效。”
 167) 『壽世祕訣』「婦人門·産後諸病」“又再下張初子腸脫出…産腸不收，半夏末，嚙鼻即上。”
 168) 『胎産心法』「卷之中·臨産須知十四則」“…如胎衣來遲，切勿慌忙，用草紙撚烟熏鼻即下。”
 169) 『壽世祕訣』「婦人門·産後諸病」“…吹爛，陳皮一兩，甘草一錢，水煎服，即散。又方，半夏一枚煨研，酒服，立愈，或爲末，隨左右嚙鼻，效。”
 170) 『兩無神編』「女科·乳病門」“吹乳腫硬疼痛… 又貝母末吹鼻中，大效。”
 171) 『醫宗損益』「戊集·婦人·産後症治」“…及以醋塗鼻，或用醋炭及燒漆器。更以手從心掩按至臍下，使惡露不滯，如此三日，以防血暈血逆。”
 172) 『晉寓神方』「諸般惡瘡·如聖丸」“治積年諸瘡不愈…龍腦 雄黃 百草霜 朱砂 牛黃 遠志 車前子 劍花 斑貓 射香 各五分，水鈿一錢。右末，合劑分作 兩柄，每一柄，片紙廣一寸半長四寸，藥末隨長，每置劍(花)而二甲作索，沈於眞油。令患人正坐於溫房，以衾瀉體覆之，以火燃柄熏兩鼻空，令伎烟不散他處，觸時先以冷水含口，使氣無犯口喉，犯之則死，其含溫則退，其觸火易吞冷水。看其久近瘡患，輕而近用五柄，重而久則用八九柄。”
 173) 『舟村新方 筆寫本』「腫」“又百草霜 水銀 白錫，各一錢，先以白錫鎔化後，入二味和勻細末，捲作紙撚九條，每早午晚 各一條，用紙作罩，勿生泄氣，燒熏鼻，男左女右，口噙冷水溫，則易之，一日三熏，九日九熏”

방법을 제외하면 모두 수은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역병을 예방하기 위해 잠자기 전 참기름을 코에 바르거나 종이 심지에 기름을 묻혀 코에 깊숙이 넣어 재채기를 유도하는 방법이 기록에 남아있으며¹⁷⁶⁾, 大頭瘟에 통기산을 코에 붙여넣어 재채기를 유도하는 방법이 나와있는데, 현호색, 조각, 천궁, 여로, 칩초화를 가루내어 하루에 3-5회 콧속에 넣어 재채기를 유도하는 방법이다.¹⁷⁷⁾¹⁷⁸⁾¹⁷⁹⁾ 특히 매일 재채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환자를 돌보는 사람의 경우에 특히 유념하여 수행하라고 하였다.¹⁸⁰⁾¹⁸¹⁾

그 밖에도 술병이 났을 때 경분, 백초상, 유향, 몰약, 주사, 수은 등을 곱게 갈아 참기름에 담갔다가 심지를 만들어 코에 훈증하는 방법도 남아있다.¹⁸²⁾

이상 언급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4. 피부질환 및 전염병 예방에 쓰인 비훈 요법의 대표 병명과 대표 약재 및 활용법

대표 병명	활용법(대표 약재)
惡瘡, 腫, 楊梅瘡, 天疱瘡	- 태워서 연기를 썸(용뇌, 옹황, 백초상, 수은, 유향, 몰약) - 코에 액체를 바름(참기름)

III. 고찰

‘코를 통한 흡수로 의약학적 효과를 도모한 방법’들은 이처럼 다양한 질환군에서 활용되었다. 기록의 비중을 놓고

본다면 인사불성과 관련된 질환군과 코를 비롯하여 두면, 오관, 인후 등에 발생한 질환군에서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 있으며, 그 외에 산과적 측면과 피부 및 전염병 예방 측면의 기록들이 남아있다.

흡수시키는 물질의 형태적 측면에서 보면 기체, 고체, 액체 상태가 모두 포함되었다. 그 중 기체 상태의 흡수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훈요법과 형태적으로 가장 유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주로 초음파를 활용하여 물질을 기화시키고 이를 비강으로 흡수시키는 것과는 달리 과거에는 액상 물질을 가열시켜 비강으로 흡수시키거나 고체 물질을 태워서 비강으로 흡수시키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방향성 있는 액체에 약용 물질을 혼합하여 비강에 흡수시키는 방법도 활용되었다. 사용된 물질 또한 다양한데, 순수한 물을 기화시켜 코에 쐬어주는 방법¹⁸³⁾을 비롯하여 약재 하나를 끓이거나 태우는 방법, 약재 여럿을 혼합하여 끓이거나 태우는 방법 등이 있었다.

고체상태의 약재를 코에 넣는 방법으로는 약재를 그대로 코에 넣는 방법, 약재가루를 숨에 묻혀서 코에 넣는 방법, 약재를 환으로 빻아서 넣는 방법, 그리고 가루를 그대로 붙여 넣는 방법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방법은 가루를 그대로 붙여 넣는 방법이었지만, 실제로 가장 손쉽게 코로 약재를 넣는 방법이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약재를 코에 직접 넣는 방식은 약재의 모양이 코에 들어가는 크기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고, 환으로 빻는 방식은 약을 조제하는 과정이 한 단계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편, 비훈요법은 중국에서 ‘훈비요법’이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왕샤오핑은 상악동염 치료에 금

174) 『宜彙續編』「宜彙拾遺」“唐瘡, 黃丹 乳香 沒藥 胡桐淚 各等分胡限一錢, 加入眞品射香尤妙, 極細末. 紙火巢早時 一分이치割作三十片. 藥艾極細擣, 藥末少許及藥艾稱是, 燃作繩, 燃火熏鼻. 一日三次, 間日爲之, 限十日, 卽效連日則昏窒而死, 慎之慎之. 熏時, 付紙片於鼻左右, 以防藥煙於眼也. 熏眼則傷眼矣.”

175) 『東醫寶鑑』「雜病篇·諸瘡·天疱瘡·熏鼻方」“治楊梅·天疱瘡, 熏鼻甚奇. 黑鉛·水銀 各一錢, 朱砂·乳香·沒藥 各五分, 血竭·雄黃·沈香 各三分. 右末, 和勻, 捲作紙燃七條, 用香油點燈, 放床上, 令病人放兩脚包住上, 用單被通身蓋之, 口噴涼水, 頻換則不損口頭, 初日用三條, 後日每用一條熏之.”

176) 『鄉藥集成方』「傷寒門·辟溫病方·《經驗良方》治傷寒疫癘同床不相傳染」“每日早朝, 洗手眞香油, 塗鼻內臨臥塗之. 《得效方》以昏熱油, 探鼻嚏之, 爲佳.”

177) 『醫宗損益』「中集·瘟疫·大頭瘟·通氣散」“治天行大頭瘟, 頭面赤腫, 或咽喉塞閉, 用此取噴嚏七八遍, 泄出毒氣則差. 看病之人用此取嚏, 亦不傳染. 玄胡索 一錢半, 皂角·川芎 各一錢, 藜蘆 五分, 躑躅花 二分半. 右末, 用紙燃藥, 絛入鼻中取嚏, 日三五次.”

178) 『新纂辟瘟方』「大頭瘟·嚏法·通氣散」“大頭瘟, 用此噴嚏. 玄胡索一錢半, 皂角 川芎 各一錢, 藜蘆五分, 躑躅花二分半. 右爲末, 用紙燃藥, 絛入鼻中取嚏, 一日三五次.”

179) 『東醫寶鑑』「雜病篇·瘟疫·大頭瘟治法·通氣散」“治天行大頭瘟, 頭面赤腫, 或咽喉閉塞, 用此取噴嚏七八遍, 泄出毒氣則差. 看病之人, 用此取嚏, 亦不傳染. 玄胡索 一錢半, 皂角·川芎 各一錢, 藜蘆 五分, 躑躅花 二分半. 右爲末, 用紙燃藥, 絛入鼻中取嚏, 日三五次.”

180) 『醫宗損益』「中集·瘟疫·大頭瘟」“常於鼻內搗通氣散, 取十餘嚏. 若搗藥下嚏者, 不可治. 每日用嚏藥三五次, 以泄毒氣, 左右看病之人, 日日用嚏藥嚏之, 必不傳染.”

181) 『新纂辟瘟方』「大頭瘟·嚏法」“大頭瘟, 俗謂之時毒. 常於鼻內搗通氣散, 取十餘嚏, 作效. 若搗藥不嚏者, 不可治也. 如嚏出膿血者, 治之必愈. 每日用嚏藥三五次, 以泄毒氣, 最是良法. 左右看病之人, 日日用嚏藥嚏之, 必不傳染.”

182) 『宜彙』「諸毒·酒病」“輕粉二錢, 百草霜二錢, 乳香 沒藥 各一錢, 槐花 穿山甲 各七分, 石雄黃 黃丹 朱砂 各四卜, 三象 鵬砂 各三卜, 孩兒茶 胡桐淚 龍腦 射香 各一卜, 水銀一錢半, 以木香末去滓用. ○右藥細末, 眞油浸, 作十八介, 心炷勳鼻.”

183) 『醫方類聚』「養生門·脾胃論·攝養」“如衣薄而氣短, 則添衣, 於無風處居止, 氣尙短, 則以沸湯壹碗, 熏其口鼻, 卽不短也.”

은화, 연고, 창이자, 길경 등의 약재 혼합물 증기를 비강에 흡입시켜 치료적 유의성을 증명하였으며¹⁸⁴⁾, 장미엔 등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탕약만으로 치료한 군과 탕약과 훈비요법을 병행하여 치료한 군을 비교하여 훈비요법 병행치료의 효과를 증명하였다.¹⁸⁵⁾ 가오더칭 등은 안면마비 치료에 파두, 호초 등의 약재 혼합물을 활용한 훈비요법을¹⁸⁶⁾, 장완창 등은 알러지성 비염에 옥수수수염을 활용한 훈비요법을¹⁸⁷⁾ 수행하였으며, 리롱화는 소아만성비염에 삼령백출산가미방의 탕약, 훈비의 병행치료를¹⁸⁸⁾, 왕투루 등은 만성비염에 창이자산가감방의 탕약, 훈비 병행치료를¹⁸⁹⁾ 수행하여 그 치료적 유의성을 입증하였다.

중국측의 연구에 따르면 훈비요법이 대부분 코와 관련된 질환군에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비단 중국 측의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동 및 아유르베다 문화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Steam Inhalation'의 경우도 코나 폐와 관련된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외에 면역계나 순환계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Santosh Kumar Swain, Ansuman Sahu는 코로나 19에 대한 보조요법으로 Steam Inhalation을 활용하여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으며,¹⁹⁰⁾ Vannipa Vathanophas 등의 연구에서는 알러지성 비염으로 발생한 코막힘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었다.¹⁹¹⁾ Dov Ophir, Yigal Elad의 연구에는 Steam Inhalation이 감기환자의 코증상 전반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는데¹⁹²⁾ 이 연구가 1987년의 연구인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30년 전부터 Steam Inhalation에 대한 연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Chowdhury 등의 연구에는 Steam Inhalation의 SARS-COV-2에 대한 연구들을 리뷰하면서 그 치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그의 연구

에서는 몇 가지 논문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적혀있는데, 다양한 약초를 활용한 Steam inhalation이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기록을 부기하였으며, 2020년에는 인도 정부차원에서 가정용 흡입 치료기 호흡기계와 면역계에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다.¹⁹³⁾ 기관지 증상 외로는 Tomohisa Ichiba 등의 연구에서 따뜻한 Steam Inhalation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¹⁹⁴⁾ 또 Abdul Hameed Ayshah Fazeenah는 우나니의학에서 말하는 Inkibab(Steam inhalation의 우나니의학에서의 표현) 치료법에 대한 효과를 리뷰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폐질환, 급성감염성 질환, 거담, 혈액 순환 증진, 수면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언급하였다.¹⁹⁵⁾ 이처럼 호흡기질환을 중심으로 연구된 해외의 연구에 비해 암치료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현 한의 임상계의 상황이나 다양한 질환에 활용가능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비훈요법의 연구확장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IV. 결론

이상으로 한국 한의학 고문헌에 기록된 비훈요법에 대한 문헌 자료들을 종합 및 분석해보았다. 본고에서는 비훈요법의 의미를 '비강을 통해 물질을 흡수하여 의약학적 효과를 도모한 방법'이라는 측면으로 규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45권의 의서 기록된 약 1천여 건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비훈요법의 활용 범주를 문헌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184) 王晓平. 「中药熏鼻加内服治疗儿童慢性上颌窦炎临床观察」. 中国中西医结合杂志. 1996;16(4):247.
 185) 张勉, 刘景, 刘毅. 「中药内服及熏鼻治疗变应性鼻炎120例临床分析」. 实用中医药杂志. 2008;24(6):349-350.
 186) 高德清, 王艳芹. 「巴椒栓熏鼻治疗面瘫56例」. 吉林中医药. 1993;4:26.
 187) 张万强, 金丽玲. 「玉米须烟熏鼻治疗高反应性鼻病临床观察」. 中国中西医结合耳鼻喉科杂志. 1999;7(2):91.
 188) 李容华. 「中药熏鼻内服加负压置换治疗儿童慢性鼻窦炎的临床观察」. 广西医学. 2004;26(10):1517-1518.
 189) 王涂路, 冯娟. 「苍耳子散加减内服及熏鼻对慢性鼻窦炎内窥镜术后的临床疗效」. 中国实验方剂学杂志. 2012;18(12): 291-292.
 190) Santosh Kumar Swain, Ansuman Sahu. 「Steam Inhalation as an Adjuvant Treatment in Covid-19 Positive Health Care Professionals: Our Experiences at Tertiary Care Teaching Hos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Current Research and Review. 2021;13(5):121-125.
 191) Vannipa Vathanophas, Piyanuch Pattamakajonpong, Paraya Assanasen, Triphoom Suwanwech. 「The effect of steam inhalation on nasal obstruction in patients with allergic rhinitis」. Asian Pacific Journal of Allergy and Immunology. 2021;39(4):304-308.
 192) Dov Ophir, Yigal Elad. 「Effects of steam inhalation on nasal patency and nasal symptoms in patients with the common cold」. American Journal of Otolaryngology. 1987;8(3):149-153.
 193) Md. Nafees Rahman Chowdhury, Yasin Arafat Alif, Safaet Alam, Nazim Uddin Emon, Fahmida Tasnim Richi, S. M. Neamul Kabir Zihad, et al. Rashid. 「Theoretical effectiveness of steam inhalation against SARS-CoV-2 infection: updates on clinical trials, mechanism of actions, and traditional approaches」. Heliyon. 2022;8(1):e08816.
 194) Tomohisa Ichiba, Kenta Kakiuchi, Masahiro Suzuki, and Makoto Uchiyama. 「Warm Steam Inhalation before Bedtime Improved Sleep Quality in Adult Men」.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9;2019:2453483.
 195) Abdul Hameed Ayshah Fazeenah. 「Effectiveness of Inkibab (steam inhalation therapy): A Scientif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s in Pharmacy Medicine and Bioallied Sciences. 2021;9(2):57-61.

으며 이들의 특징을 주로 사용된 질환류를 기준으로 분류해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비훈요법이 쓰인 질환군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인사불성 등으로 입을 열 수 없는 응급질환군이다. ‘중약’, ‘객오’, ‘혈훈’ 등의 병증에 식초, 파두, 조각, 반하 등의 약재를 사용하였는데, 약재를 태우거나 가열로 증발시키는 방법 외에도 약재가루를 코에 불어 넣거나 액체를 코에 붓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두 번째는 두면, 오관 등 인체 상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군이다. 코피, 코막힘, 두통, 치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었으며, 나복자즙, 청상자즙, 부추즙 등 액상으로 되어 있는 약재를 코에 붓는 방법부터 부평, 백반, 조각, 옹황, 세신 등의 가루를 코에 불어넣는 방법, 고본이나 세신 같은 약재를 태워서 그 연기를 쐬는 방법까지 각 증상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어 의약학적 효과를 도모하였다.

세 번째는 출산과 관련된 질환군이다. ‘혈훈’처럼 인사불성이 되는 경우나 ‘음탈’, ‘취유’같은 질환에 활용되었으며, 식초, 참기름, 전갈, 조각, 반하 등의 약재가 사용되었다. 네 번째는 기타 영역으로 피부질환 치료나 전염병예방의 측면에서 사용된 것들이다. ‘약창’, ‘양매창’, ‘천포창’ 등에 용뇌, 옹황, 백초상, 수은 등의 약재가 사용되었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 모두 앞서 살펴본 두 가지와 마찬가지로 액상 약재를 가열하여 만들어진 증기나 고체 약재를 태워서 만들어진 연기를 코로 흡입하거나 가루를 코에 불어넣는 등의 방법 등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비훈요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헌학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한국 의서들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아직 문헌학적인 연구가 미비한 주제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검색함에 있어서 ‘기화된 물질을 비강을 통해 흡수한다’보다는 ‘비강을 통해 물질을 흡수한다’라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방향성으로 인해 비훈요법이 앞으로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초음파를 통해 기화시키는 방법이 일반화된 오늘날이기에 고체나 액체 약재를 사용하여 비강에 흡입시키는 방법들을 화상에 대한 위험성 없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한계를 많이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쓰여진 의서들의 집합을 데이터베이스의 근간으로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검색어 설정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도 비훈이라는 개념어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鼻熏, 熏鼻, 勳鼻 등 다양한 검색어를 사용하였으나 자료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아 ‘코에’ ‘콧속에’와 같은 검색어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자료를 모은 다음 거기서 일일이 적절한 자료를 선별해야 했다. 수많은 의서에 사용되는 개념어들을 통합, 정리하여 자료를 비교해볼 수 있다면 데이터베이스로서 고의서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사사표기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고유번호 : HF23C0030).

참고문헌

1. 차웅석, 장영재, 나지원, 안상우. 『『의방유취』를 이용한 한의학 치료기술 개발의 가능성에 대한 모델링 연구』. 한국 의사학회지. 2023;36(1):143-154.
2. 정현정. 「향기요법의 암 환자 불면에 대한 효과에 관한 예비임상연구」. 대한암한의학회지. 2022;27(1):37-48.
3. 오현주, 이철완. 「향기요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996;6(1):427-430.
4. 김승모, 박성훈, 서정철, 이건호, 김경순. 「암 환자에서 향기 흡입요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동서의학. 2013;38(3):57-62.
5. 王晓平. 「中药熏鼻加内服治疗儿童慢性上颌窦炎临床观察」. 中国中西医结合杂志. 1996;16(4):247.
6. 张勉, 刘景, 刘毅. 「中药内服及熏鼻治疗变应性鼻炎120例临床分析」. 实用中医药杂志. 2008;24(6):349-350.
7. 高德清, 王艳芹. 「巴椒桤薰鼻治疗面瘫56例」. 吉林中医药. 1993;4:26.
8. 张万强, 金丽玲. 「玉米须烟熏鼻治疗高反应性鼻病临床观察」. 中国中西医结合耳鼻喉科杂志. 1999;7(2):91.
9. 李容华. 「中药熏鼻内服加负压置换治疗儿童慢性鼻窦炎的临床观察」. 广西医学. 2004;26(10):1517-1518.

10. 王涂路, 冯娟. 「苍耳子散加减内服及薰鼻对慢性鼻窦炎内窥镜术后的临床疗效」. 中国实验方剂学杂志. 2012;18(12):291-292.
11. Santosh Kumar Swain, Ansuman Sahu. 「Steam Inhalation as an Adjuvant Treatment in Covid-19 Positive Health Care Professionals: Our Experiences at Tertiary Care Teaching Hos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Current Research and Review. 2021;13(5):121-125.
12. Vannipa Vathanophas, Piyanuch Pattamakajonpong, Paraya Assanasen, Triphoom Suwanwech. 「The effect of steam inhalation on nasal obstruction in patients with allergic rhinitis」. Asian Pacific Journal of Allergy and Immunology. 2021;39(4):304-308.
13. Dov Ophir, Yigal Elad. 「Effects of steam inhalation on nasal patency and nasal symptoms in patients with the common cold」. American Journal of Otolaryngology. 1987;8(3):149-153.
14. Md. Nafees Rahman Chowdhury, Yasin Arafat Alif, Safaet Alam, Nazim Uddin Emon, Fahmida Tasnim Richi, S. M. Neamul Kabir Zihad, et al. Rashid. 「Theoretical effectiveness of steam inhalation against SARS-CoV-2 infection: updates on clinical trials, mechanism of actions, and traditional approaches」. Heliyon. 2022; 8(1):e08816.
15. Tomohisa Ichiba, Kenta Kakiuchi, Masahiro Suzuki, and Makoto Uchiyama. 「Warm Steam Inhalation before Bedtime Improved Sleep Quality in Adult Men」.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9;2019:2453483.
16. Sarah Al Himdani, Muhammad Umair Javed, Juliana Hughes, Olivia Falconer, Christopher Bidder, Sarah Hemington-Gorse, et al. 「Home remedy or hazard? management and costs of paediatric steam inhalation therapy burn injuries」.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2016;66(644):e193-e199.
17. Abdul Hameed Ayshah Fazeenah. 「Effectiveness of Inkibab (steam inhalation therapy): A Scientif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s in Pharmacy Medicine and Bioallied Sciences. 2021;9(2):57-61.
18. 저자미상 “검요”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115>> (2023.10.30.)
19. 저자미상 “경보신편”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165>> (2023.10.30.)
20. 이경화 “광제비급”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4>> (2023.10.30.)
21. 조정준 “급유방”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6>> (2023.10.30.)
22. 이진태 “단곡경협방”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7>> (2023.10.30.)
23. 신해용 “단방비요경협신편”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99>> (2023.10.30.)
24. 허준 “동의보감”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8>> (2023.10.30.)
25. 원지상 “동의사상신편”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9>> (2023.10.30.)
26. 이제마 “동의수세보원_갑오구분”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183>> (2023.10.30.)
27. 이제마 “동의수세보원_신축본”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182>> (2023.10.30.)
28. 허준 “벽역신방”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168>> (2023.10.30.)
29. 저자미상 “별초단방”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125>> (2023.10.30.)
30. 현재덕 “본초유함요령”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23>> (2023.10.30.)
31. 사암도인 “사암도인침법”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95>> (2023.10.30.)
32. 이석간, 채득기, 박렴, 허임 “사의경협방”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1>> (2023.10.30.)
33. 이규준 “소문대요”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31>> (2023.10.30.)
34. 최규현 “소아의방”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187>> (2023.10.30.)
35. 이창우 “수세비결”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111>> (2023.10.30.)
36. 이인재 “수진경협신방”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36>> (2023.10.30.)
37. 최한기 “신기천험”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130>> (2023.10.30.)
38. 유이태 “실험단방”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107>> (2023.10.30.)
39. 남재철 “양무신편”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books/115>> (2023.10.30.)

- kr/books/110> (2023.10.30.)
40. 신기영 “양의미”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43>> (2023.10.30.)
41. 허준 “언해구급방”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44>> (2023.10.30.)
42. 허준 “언해두창집요”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46>> (2023.10.30.)
43. 허준 “언해태산집요”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47>> (2023.10.30.)
44. 송계산인 “요략”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122>> (2023.10.30.)
45. 김우선 “의가비결”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49>> (2023.10.30.)
46. 이규준 “의감중마”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52>> (2023.10.30.)
47. 주명신 “의문보감”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54>> (2023.10.30.)
48. 한계희, 임원준, 권찬 등 “의방유취”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56>> (2023.10.30.)
49. 저자미상 “의방합부”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58>> (2023.10.30.)
50. 저자미상 “의본”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124>> (2023.10.30.)
51. 수경거사 “의원거강”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128>> (2023.10.30.)
52. 황도연 “의중손익”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59>> (2023.10.30.)
53. 금리산인 “의휘”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60>> (2023.10.30.)
54. 이석간 “이석간경험방”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61>> (2023.10.30.)
55. 문기홍 “체세보감”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68>> (2023.10.30.)
56. 신만 “주촌신방_연인본”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70>> (2023.10.30.)
57. 지송옥 “증보단방신편”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98>> (2023.10.30.)
58. 허영, 허연 “진양신방”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75>> (2023.10.30.)
59. 저자미상 “진우신방”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76>> (2023.10.30.)
60. 이영춘 “춘감록”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83>> (2023.10.30.)
61. 허임 “침구경험방”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86>> (2023.10.30.)
62. 유효통, 노중례, 박윤덕 등 “향약집성방”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93>> (2023.10.30.)